

## \*\*현대 건축에 나타난 표면의 다중적 역할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Multi-faceted Roles of Surface in Contemporary Architecture

김종진\* / Kim, Jong-Jin

#### Abstract

There has been preconceived assumption that, in good architecture, exterior and interior have to be harmoniously related to each other. However, in contemporary architecture, it is easy to witness that this harmonious relationship between exterior and interior is severely challenged and various exterior surfaces have multi-faceted roles. Rem Koolhaas explained this sort of new situation in the light of 'lobotomy' that is a surgical method for mental disorders, based on the high-rise buildings in the early Manhattan. This study is started with the Rem Koolhaas' lobotomy concept and how this concept is applied to his projects. The multiple roles of exterior surface can be also found in many contemporary architects' projects. Among them, Jacques Herzog & Pierre de Meuron and Toyo Ito's recent projects are discussed to further analyze the new roles of surface and compared with Rem Koolhaas' case. Although the architects discussed present very limited scope of what is happening on the surface of contemporary architecture, it is hoped to disclose some examples of new relationship between exterior and interior.

키워드 : 표면, 다중적 역할, 렘 쿨하스, 헤르조그 & 드 메론, 토요 이토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라고 하는 루이 설리반(Louis Sullivan)의 선언은 근대건축의 강력한 도그마 중의 하나이다. 건축물의 외부 형태가 내부공간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표현해야 하고 또한 외부와 내부는 서로 유기적으로 일관되게 디자인되어야 한다는 이 말은 많은 건축가들의 생각들에 강령처럼 작용해 왔다. 실제로 건축디자인에 있어서 이상적인 것으로 알려져 왔던 여러 계획들 중에는 외부와 내부라는 분리된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즉 한사람의 마스터 건축가에 의해 유기적이고 일관되게 내부와 외부가 관계를 가지게 설계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건축가에 의해 디자인된 유명 건물들을 떠나 단순히 일상적인 건물들에서도 마찬가지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전통적인 한옥이나 흔히 볼 수 있는 일반 주택들의 경우에도 내부와 외부를 '의식적으로' 따로 분리하여 설계하는 것은 매우 흔치 않은 일이다.

그런데 현대 건축에서 한 건물에 있어서의 이러한 조화로운

외부와 내부의 관계가 다양한 각도에서 깨지고 있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현대 건축에서 새롭게 부각되기 시작한 외부 표면들은 그 속에 담겨진 내부공간의 내용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표면 그 자체만을 위해 디자인된 경우도 많이 있다. 건축가나 디자이너에 의해 의도적으로 계획된 이러한 표면에 대한 관심은 물론 건축사의 다양한 시기에서 찾아 볼 수 있지만 현대 건축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매우 복합적인 양상을 가지고 있다. 즉 외부 표면이 가지는 역할이 보다 다양해지면서 내부공간과의 관계가 단순히 단절된 경우뿐만 아니라 내, 외부의 관계가 매우 미묘하게 설정되는 등 아주 복잡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다층적이고 다중적인 표면의 역할이 본 논문이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바이다.

### 1.2. 연구의 대상과 방법

건축의 외부표면을 독특하게 다루는 현대 건축가들은 매우 다양하다. 본 논문은 그 중에서도 렘 쿨하스(Rem Koolhaas), 헤르조그 & 드 메론(Herzog & de Meuron), 그리고 토요 이토(Toyo Ito)를 논한다. 많은 건축가들 중에서도 이 세 건축가가 선정되었던 이유는 물론 이 건축가들이 항상 표면의 이미지만을 추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지는 않지만 외부 표면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비슷해 보이면서도 또한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가

\* 정회원,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실내건축설계학과 전임강사

\*\* 이 논문은 2004학년도 건국대학교 신입교원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 비교분석해 보았을 때 보다 다양한 태도들을 동시에 읽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렘 쿨하스의 경우에는 그의 저서 『Delirious New York』에 잘 나타나 있듯이 외부표면과 내부공간과의 관계를 초기 맨하탄의 도시상황을 바탕으로 매우 독특한 그의 편집증적 분석방법으로 해석해 내고 있다. 그의 방법론은 현대 건축의 전반적인 상황으로 확대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하나의 도시상황을 배경으로 건물의 내, 외부 사이의 관계를 해석했다는 점에서 특징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건축의 외부와 내부사이의 유기적이고 조화로운 관계에 대한 전통적인 생각들을 살펴본 다음 세 건축가들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표면에 대한 그들의 생각들을 고찰해 본다.

마지막으로 결론부분에서 건물의 외부 표면이 가진 다중적 역할이 현재 서울에 있는 건물들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본다. 이 마지막 고찰은 이러한 다중적 표면의 역할이 단지 특정 도시, 특정 건축가에게만 해당되는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현대 도시의 건축에서 일어나고 있는 보편적인 현상들 중의 하나라는 것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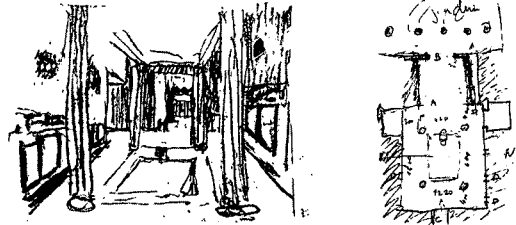
## 2. 건축의 외부와 내부 사이의 유기적 관계

르 코르부지에(Le Corbusier)는 그의 저서 『Towards A New Architecture』의 'The Illusion of Plans'라는 장에서 건축에 있어서 내부와 외부의 관계는 조화롭고 일관되게 계획되어야 하고 외부는 내부의 결과물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건물은 비누 거품과 같다. 일정한 숨으로 불어서 이 거품이 내부로부터 규칙적으로 생겨난다면 그 거품은 완벽하고 조화로운 것이다. 외부란 곧 내부의 결과물인 것이다."<sup>1)</sup>

여기서 르 코르부지에가 이야기하고 있는 외부는 단순히 건물의 외피나 표면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외부란 건물의 덩어리, 즉 주변의 자연과도 전체적으로 하나로 통합되어질 수 있는 매스들을 뜻한다. "평면은 내부에서 시작해서 외부로 진행된다. 왜냐하면 집이나 궁전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물체에 비유될 수 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이다. (중략) 대지와 관련되어 건물이 갖는 영향을 고려해 본다면, 이 때는 외관도 항상 실내라는 사실을 나는 설명하고자 한다."<sup>2)</sup>

즉 코르부지에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부와 외부의 연관성에서 그 관계는 실내에서부터 건물의 매스를 통해 대지의 자연으로까지 뻗어 나가는 유기적 체계를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건물에서 실내공간이 그 내부라면, 다시 자연환경이라는 외부 공간에서 건물들은 또 다른 내부공간을 만드는 조직적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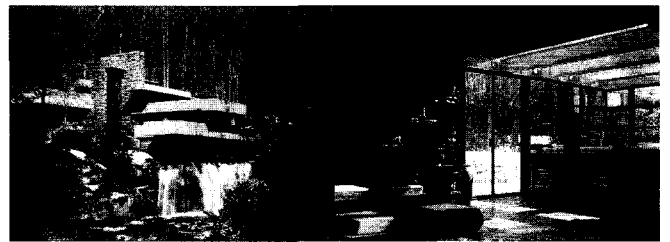
시스템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폼페이에 있는 카사 델 노체를 설명한 글에서 코르부지에는 내부에서부터 건축의 외부로 그리고 주위의 자연으로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된 공간경험을 역설하고 있다<그림 1>.<sup>3)</sup>



<그림 1> The Casa Del Noce, The Atrium, Pompeii

건축 내, 외부공간의 이러한 유기적 관계는 건축의 역사를 통해 자주 이상적인 것으로 전달되어 왔다. 건축사에 있어서 이정표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건물들의 많은 경우, 한사람의 마스터 건축가에 의해 건축의 내부, 외부공간이 일체로 통합되어져 계획되어졌다<그림 2>.

이것은 현대건축의 예들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건축가에 의해 설계된 대부분의 건물들의 경우 내부와 외부, 그리고 주변의 대지상황-자연은 하나로 통합된 유기적 질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건축계획에 있어서 디지털화가 지속적으로 발전 해가고 있는 지금, 설계는 건축이라는 제한된 범위를 뛰어 넘어서 가구, 인테리어, 건축, 도시공간의 유기적인 통합공간을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입체적이면서 조직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게 되었다.



<그림 2> Fallingwater, Pennsylvania, 외부와 내부공간

그런데 현대 건축의 다른 한 부분에서는 이러한 한 건물 내에서의 외부와 내부 공간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가 깨지고 있는 사례들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된 유기적 관계와 전혀 반대되는 이 새롭고 독특한 단절 또는 느슨한 관계는 도시적 상황 속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것일 수도 있고 또한 건축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계획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면 먼저 렘 쿨하스의 사례를 초기 맨하탄을 배경으로 분석해 본다.

1) Le Corbusier, 장성수·장성주 역, Towards A New Architecture (새로운 건축을 향하여), 태림문화사, 1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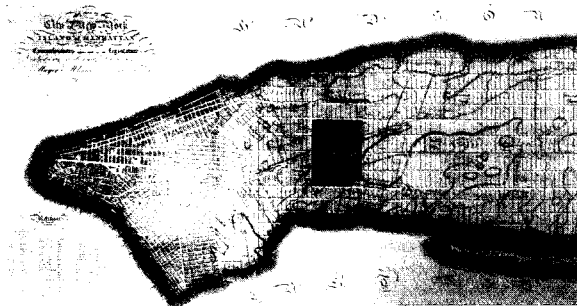
2) 앞의 책 1), p.156.

3) 앞의 책 1), p.159.

### 3. 렘 쿨하스의 ‘뇌엽절제수술(Lobotomy)’ 개념과 프로젝트의 표면에 나타난 다중적 역할

#### 3.1. 1900년대 초반의 맨하탄과 뇌엽절제수술

현재의 맨하탄 도시구조를 결정적으로 확정지은 것은 1811년 섬 전체가 총 2028개의 균일한 블록들로 나누어지게 되는, 흔히 ‘맨하탄 그리드’라고 불리는 그리드 패턴의 도시계획이었다<그림 3>.<sup>4)</sup> 이 그리드 계획에는 섬이라는 한정된 공간을 최대한 같은 크기의 땅으로 잘게 나누어서 공평하게 분배한다는



<그림 3> The Manhattan Grid, 1811

생각이 있었는데 이것은 맨하탄 섬의 기존 지형을 무시하고 하나의 백지위에서 유출된 추상적인 사고의 결과이기도 하다.<sup>5)</sup> 이렇게 좁고 한정된 땅에서의 그리드 패턴의 도시계획은 매우 독특한 공간특성들을 만들어내게 된다. 먼저 가로로 둘러싸인 개별 그리드 부지 하나하나를 옆으로 확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직적으로 팽창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고층건물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 또 좁은 땅에 다양한 것들이 섞이게 되는 밀집의 문화가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초기의 맨하탄에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 시작한 최초의 고층건물 형성에 대해 건축역사가 캐롤 윌리스(Carol Willis)는 『Form Follows Finance』에서 세 가지의 주요한 원인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들은 “상업적으로 이용되어질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요구, 빌딩 높이에 대한 법적 제한의 부족, 그리고 1811년의 도시계획에 나타난 그리드 패턴”<sup>6)</sup>이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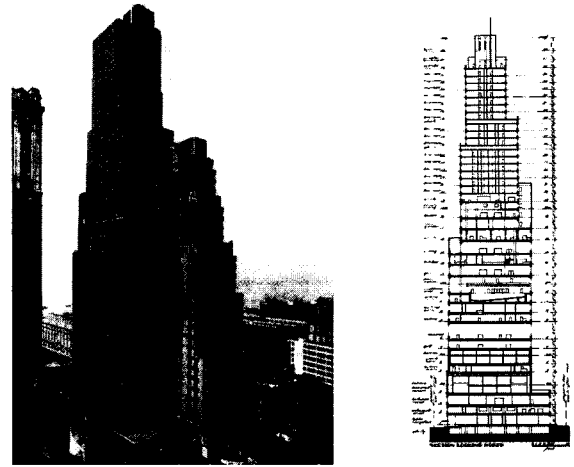
초기 맨하탄이 가지는 이러한 독특한 밀집의 도시공간은 유럽의 도시들과는 전혀 다른 특징들을 가지게 되고 그 결과 건축가들이 해결해야 하는 도시 공간적 상황들도 다른 모습을 띠게 된다. 그 중의 하나가 고층건물들의 볼륨이 커지면서 건물의 외피와 그 속에 담겨진 인테리어 프로그램사이의 관계성의 변화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축가들에게 이상적인 계

4)Rem Koolhaas, Delirious New York, 010 Publishers, 1994, pp.13-20. 렘 쿨하스는 이 책의 Prehistory부분에서 맨하탄의 초기 도시계획이라 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5)앞의 책 4), p.20.

6)Carol Willis, Form Follows Finance,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95, p.36.

획은 일반적으로 건물의 내부와 외부가 일관되게 디자인하는 것이었지만 초기의 메트로폴리스가 성장하면서 이러한 이상적인 방법들이 새로운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 4> Downtown Athletic Club, 1931 (Starrett & Van Vleck)

렘 쿨하스는 그의 저서 『Delirious New York』에서 맨하탄의 고층건물들에서 나타난 건축적 표면과 인테리어 프로그램 간의 이러한 상이성에 대해서 ‘뇌엽절제수술(Lobotomy)’이라는 독특한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먼저 그는 서양건축에서 지속적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건축의 외부와 내부에 있어서의 조화롭고 유기적인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것이 서양건축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이고 이상적인 것에 대한 인간적인 가정(humanistic assumption)’<sup>7)</sup>이라고 비판한다. 그리고 맨하탄의 초기 고층건물들이 직면했던 볼륨의 문제로 넘어간다. 건물의 볼륨이 기하학적으로 커지게 되면 그것을 감싸는 외피는 2차원적으로 증가하지만 그 속에 담겨진 내부의 공간은 3차원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 외피는 내부볼륨의 증가를 따라잡을 수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당연히 내부와 외부의 일관된 관계성



<그림 5> Downtown Athletic Club의 다양한 내부 공간 모습, 좌측부터 수영장(12층), 골프코스(7층), Oyster Bar(9층)

은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맨하탄의 초기 고층 건물들이 직면했던 문제들 중의 하나인 외부의 표면과 내부 공간 사이의 일관된 관계-외부는 내부를 드러내야 한다는 강박적 관념-의 현실적 불가능성은 맨하탄의 건축가들로 하여금 새로운 해결 방법을 찾게 만드는데 바로 그것이 렘 쿨하스가 말하는 ‘뇌엽절제수술’이다.<sup>8)</sup> 정신질환을 고치기 위해 뇌의 전엽(frontal

7)앞의 책 4), p.100.

lobes)과 나머지 부분을 외과적으로 분리시키는 치료 방법으로 건축가에 의한 외부와 내부 사이의 '의도적' 단절을 그의 편집 증적 해석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그림 4, 5>.

### 3.2. 렘 쿨하스의 프로젝트 사례

그러면 렘 쿨하스가 초기 맨하탄의 건물들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해석방법으로 추출해냈던 뇌엽절제수술 개념과 그가 생각하는 외부 표면의 다중적 역할이 프로젝트들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를 독일의 ZKM 공모전 제출안과 일본의 넥서스(Nexus) 주거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1) ZKM (Center for Art and Media Technology), Karlsruhe, Germany, 1989-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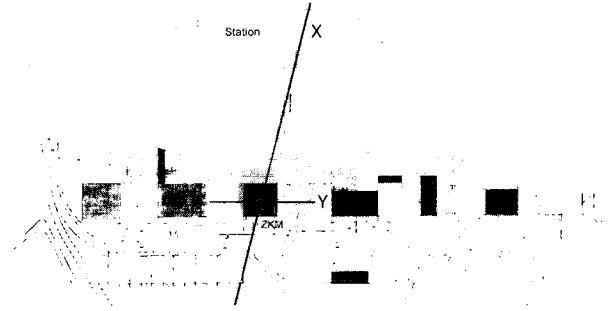
ZKM 프로젝트는 독일 칼스루헤의 중앙기차역 건너편 부지에 계획된 복합 예술 및 미디어 센터이다. 공모전에서 당선된 렘 쿨하스의 안은 계획 설계(Design Development) 단계까지 발전이 되어졌지만 이후 칼스루헤의 복잡한 정치, 경제적 문제들로 인해 프로젝트는 중단되게 된다.<sup>9)</sup> 이 프로젝트는 렘 쿨하스가

『Delirious New York』에서 이야기했던 뇌엽절제수술의 개념과 다양한 도시적 상황들이 어떻게 건축적 표면과 그 내부의 인테리어 공간과의 관계를 만들어 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먼저 <그림 7>에서 볼



<그림 8> ZKM, 동측 입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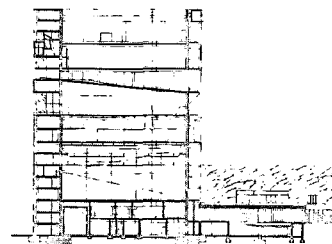
수 있듯이 ZKM 프로젝트의 부지는 2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X축은 북쪽에 위치한 전통적인 칼스루헤 도시센터와 관계이고 Y축은 센터 앞에 새롭게 형성되는 공공 광장과와의 관계이다. 여기서 렘 쿨하스는 Y축 상에 놓여지게 되는 동측입면에 거대한 전자 빌보드를 설치하고 있다<그림 6>. 이 프로젝트를 설명한 글에서 그는 “이 메탈 월(Metal Wall)은 미디어 센터 내부의 활동들이 실제시간으로 영상으로 투영되기도 하고 상업적인 광고, 기차 네트워크의 정보들이나 CNN 뉴스 등으로 바뀌기도 한다.”<sup>10)</sup>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미디어 센터의 내부활동들이 밖으로 영상처리 되어 투영되기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선택적으로 걸러진 디지털 이미지일 뿐, 내부 공간의 물리적 실체가 외부의 건축표면과 관계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즉 다시 말하면 건축 표면과 내부 인테리어 공간과의 관계가 물리적 실체에 의한 유기적 관계라기보다는 선택적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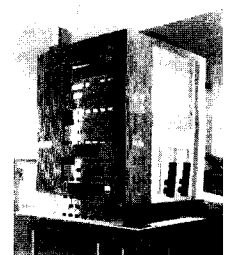
<그림 7> ZKM의 대지상황과 두 축을 보여주는 Site Plan

불연속적인 촬영과 이미지 투사의 관계일 뿐이다. 그리고 그 이미지마저 장치가 있으면 어느 곳에서나 투사가 가능한 디지털 영상인 것이다. 여기서 내부와 외부의 관계는 보다 선택적이고 우연적으로 변하게 된다.

그리고 ZKM의 4개의 입면은 서로 전혀 다른 모습을 띄고 있는데 동측입면은 위에서 언급된 대로 바로 앞에 위치한 옥외 광장의 사람들을 위해 정보 이미지 월로 만들어졌고 나머지 3개의 입면들은 동측입면과는 또 다른 자신들만의 구축논리를 가지고 구성되어 있다. 이 나머지 입면들의 디자인은 렘 쿨하스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내부와 외부의 구성방법과 특히 건축 표면의 다중적 역할과 관련이 있다.



<그림 8> ZKM, 동서 단면도



<그림 9> ZKM, 서측, 남측 입면

전체 건물의 볼륨인 43x43x58 미터의 박스 속에는 또 하나의 작은 박스가 그 속에 숨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미디어센터가 가진 다양한 활동들-전시, 공연, 녹음 등을 가능하게 해주는 자유로운 평면의 실제 내부가 되고 그 작은 박스와 외부 박스 사이의 틈 공간은 각종 동선들을 연결하는 계단과 램프 등이 위치한 사이공간이 되는 것이다<그림 8>. 즉 <그림 9>의 서측, 남측 두 입면에서 간간히 투영되고 있는 내부의 공간들은 실제로는 각종 미디어 센터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작은 박스밖에 위치한 동선 공간의 모습인 것이다. 이렇듯 렘 쿨하스는 한 프로젝트 안에서 내, 외부 사이의 다양한 코드들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이미지 월로서의 동측 건축표면과 전체 내부 볼륨이 가지는 상이한 이중성과 주로 실루엣으로 처리된 외부 동선이 드러나는 서측, 남측 표면들과 실제 미디어센터(작은 박스) 내부활동 사이의 또 다른 이중코드가 함께 병치되어 배

8) 앞의 책 4), pp.100-101.

9) Rem Koolhaas and Bruce Mau, S, M, L, XL, 010 Publishers, 1995, p.763. 이 페이지에서 당시의 칼스루헤가 가지고 있던 정치적, 문화적 이슈들과 ZKM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과정이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다.

10) 앞의 책 10), p.696.

우 복합적인 다층적 표면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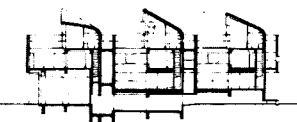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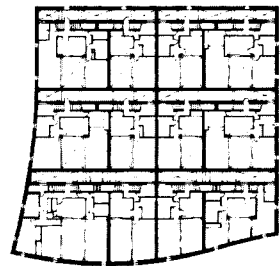
(2) Nexus World Housing, Fukuoka, Japan, Completed 1991

일본 후쿠오카에 1991년 완공된 넥서스 주거계획은 램 쿨하스의 첫 번째 아시아 프로젝트로 스티븐 홀, 마크 맥 등 5명의 서구 건축가들과 아라타 이소자키, 오사무 이시야마가 참여했는데 램 쿨하스 주거는 그의 독특한 공간구성방식과 표면다루기를 잘 보여주고 있다. 먼저 여러 건축가들의 작품들이 함께 보여 지는 <그림 10>을 보게 되면 가운데 위치한 램 쿨하스의 수평으로 검은 띠 블록들은 다른 건물들-오른쪽의 마크 맥 주거, 왼쪽의 스티븐 홀 주거 등과는 확연히 다른 공간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0> Nexus World Housing, 완공사진

우선 그의 주거계획은 2개의 단지로 나누어서 검은 돌쌓기(cyclopic)의 수평 벽으로 폐쇄적으로 묶고 그 내부는 격차처리를 하여 각 주거가 외부에 대해서는 막혀있지만 가운데 중정을 통해 하늘과 땅과 수직적으로 연결되어 있게 구성되어 있다 <그림 11>. 이 주거계획에서도 또다시 외부의 건축적 표면과 내부의 인테리어 공간은 상이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 1층의 전면으로 배치된 상가의 경우는 상업적인 이유 때문에 내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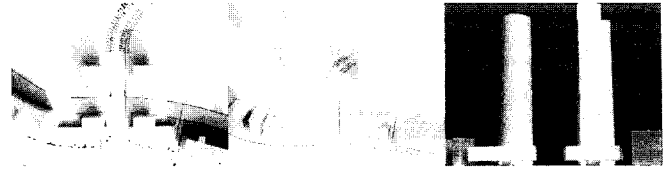


<그림 11> Nexus World Housing, 서측동 평면 및 단면

간이 흰히 들여다보이게 되어 있지만 그 위의 주거계획에서는 다른 건축가들의 주거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건축의 외부와 내부가 상반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간구성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램 쿨하스가 이야기하는 '뇌엽절제수술'의 개념이 강하게 깔려있다. 주거계획을 의뢰 받았을 초기의 계획들을 살펴보면 지금과 같은 공간구성과는 전혀 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2>의 왼쪽 사진을 보면 지금과 다른 4

개의 타워가 배치되어 있고, 가운데 사진을 보면 주거 계획이 지금과 같은 2개의 수평단지로 나뉘고 뒷면에 2개의 높은 고층

건물들이 위치하고 있다. 원래 떨어져서 설계되었던 아라타 이소자키의 고층건물 두 동이 바로 뒤에 위치하게 변경됨에 따라 램 쿨하스는 자신의 설계를 바꾸면서 “배후의 초고층동과는 대조적으로 높이는 되도록 억제하고 가능한 넓은 블록을 만드는 안”을 만들어 낸다. “이리하여 두 건물은 한 쌍의 초고층동의 초석(Sockle)이 된다.”<sup>11)</sup>



<그림 12> Nexus World Housing, 스테디 모형 전개과정

여기서 램 쿨하스 주거의 외부형태는 주변 컨텍스트 상황 속에서 주거내부와는 또 다른 임무를 가지게 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자신만의 폐쇄적인 내부중정을 가진 주거들이 다양한 요소들을 가지고 생활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있는 동시에 외부의 형태는 다른 건물의 초석으로 되어야하는 상반된 이중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중의 역할과 공간구성은 앞에서 언급되었던 맨하탄의 Downtown Athletic Club(1931)과 매우 유사하다.<sup>12)</sup> Downtown Athletic Club의 외부형태가 당시의 주변 고층건물들과 유사하게 보이길 원하면서 그 내부에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공간들을 가지고 있었다면 넥서스 주거계획에서는 그 외부형태가 배면의 고층건물과 수직-수평의 관계를 가지면서 내부에서는 또 다른 중정형 주택이라는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각각의 건물의 외부와 내부가 대응하는 방법은 서로 다르지만 한 건물에서의 외부와 내부가 서로 다른 이중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은 동일하다.



<그림 13> The City of the Captive Globe, 1972

또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넥서스 주거계획의 격차형 내부공간이 가지는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폐쇄된 중정형 주거타입들의 패턴<그림 11>이 램 쿨하스가 『Delirious New York』에서 1900년대 초의 맨하탄의 그리드형 밀집문화와 뇌엽절제수술을 이야기하면서 제시했던 <그림 13>과 상당히 유사함을 발견할 수 있다. 즉 그가 특유의 방법으로 해석했던 초기 메트로폴리스, 맨하탄에서의 다양한 도시적 상황들은 자신의 프로젝트들 속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것이다.<sup>13)</sup> 램 쿨하스의 이러한 해석과 디자인

11)Nexus World, 서우문화사, 1993, p.139.  
12)앞의 책 4), pp.152-159.  
13)앞의 책 4), pp.294-2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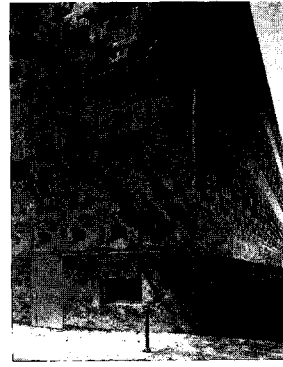
적용 방법은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도시와 건축을 읽는 것으로 다른 현대 건축가들의 생각들과는 다른 모습을 가진다.

#### 4. 헤르조그 & 드 메론과 토요 이토의 프로젝트에 나타난 표면의 다중적 역할

건축의 외부표면과 내부공간사이에 발생하는 새로운 관계성들은 다른 현대 건축가들의 프로젝트들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많은 건축가들 사이에서도 특히 스위스 건축가 자크 헤르조그 & 피에르 드 메론(Jacques Herzog and Pierre de Meuron)과 토요 이토(Toyo Ito)의 최근 작품들은 이러한 새로운 관계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이들의 건축에서 나타난 관계성들은 렘 쿨하스의 것과는 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된 렘 쿨하스의 작업들 중에서 특히 넥서스 주거의 경우를 보면 외부의 형태와 표면이 내부공간과는 상관없이 오히려 주변의 건물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헤르조그와 드 메론의 일부 프로젝트에 있어서는 외부표면이 그 자체만의 시각적 이미지가 되면서도 또한 동시에 시간에 따라 내부 공간이 외부로 은은하게 투영되는 독특하게 느슨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토요 이토의 경우에는 외부 표면이 이미지와 함께 구조적인 역할까지 담당으로써 내부공간에 구조적 자유로움을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먼저 헤르조그 & 드 메론의 프로젝트를 살펴본다.

##### 4.1. 헤르조그 & 드 메론의 프로젝트 사례

헤르조그와 드 메론은 1995년에 완공된 바젤의 SBB 시그널 타워를 비롯하여 많은 프로젝트에서 독특하고 개성적인 건축의 외부표면을 만들어 내고 있는데 스미소니안 뮤지엄(Smithsonian Institution)의 디자인 큐레이터인 엘렌 럽튼(Ellen Lupton)은 그녀의 저서 『Skin: Surface, Substance and Design』에서 헤르조그와 드 메론은 그들의 건축에서 표면, 레이아웃, 껍질의 상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들 건물의 외부 표면은 자주 이미지로 덮여 있다고 말하면서 그들의 디자인 프로세스 과정에서 보여지는 외부 표면의 이미지화를 논하고 있다.<sup>14)</sup> 1999년 독일 Eberswalde에 완공된 기술학교(Technical School)의 도서관 건물은 이미지화된 외부의 표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그림 14>. 도서관 외부 콘크리트 표면에는 원하는 이미지들을 표현하기 위해 세릴리스(Serilith)라고 하는 전통적인 실크 스크린 방식을 응용한 독특한 전사기법을 사용했고 유리 표면에는 이미지들을 바로 실크스크린으로 옮겨 놓았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건물의 표면은 외부에서 전체적으로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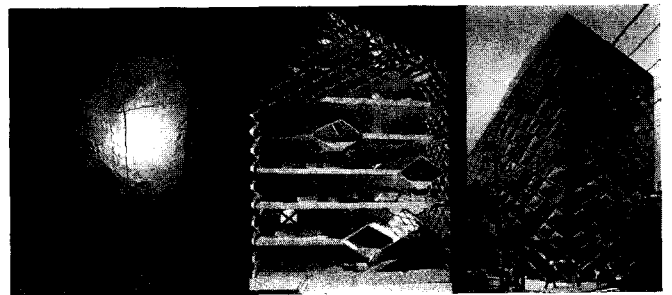


<그림 14> Technical School Library 외부표면

의 푸른 이미지 율로 되어버린다. 그리고 기능적인 공간구성의 도서관 내부와는 큰 연관성이 없는 이미지로서의 외부와 기능적인 내부라는 이중의 관계를 만들어 내고 있다.

최근에 완공된 일본 도쿄의 프라다(Prada) 매장건물에서는 외부표면과 내부공간 사이의 관계가 앞의 기술학교 도서관의 경우처럼 이미지화된 외부와 기능적 내부의 단절이 아니라 내, 외부의 관계가 보다 복잡적으로 얽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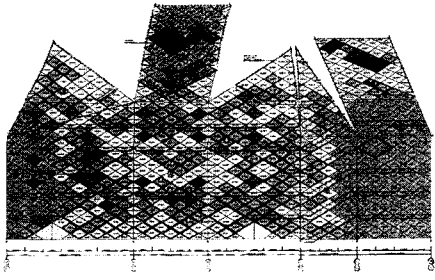
자유로운 구성의 인테리어 공간을 모두 덮고 있는 것은 마름모꼴의 유리블록으로 이루어진 외부의 울퉁불퉁한 표면이다. 프라다의 유명한 로고 형태를 차용한 마름모꼴의 디자인 개념은 건물의 내부와 외부에 걸쳐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매장 내부에는 독특한 모양의 마름모꼴 튜브형태의 디스플레이 공간 등이 배치되어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이 밤에 자연스럽게 내부에서 외부로 투영되기도 한다. 이 건물에서도 외부의 표면은 마치 그물과도 같은 거대한 마름모 패턴의 표피로 만들어져서 건물전체를 덮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 역시 외부의 표면을 하나의 독립된 ‘껍질’로 여기는 헤르조그와 드 메론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그림 16>.



<그림 15> Prada, Tokyo 좌측부터 초기 계획안, 스터디 모형, 최종 건물의 외부표면

이 건물의 초기 스터디 모형을 보면 애초에 건축가들이 의도했던 아이디어들이 잘 나타나 있다. 인테리어 공간의 볼륨을 반투명 재료로 감싸고 다시 그 바깥에 유리표면으로 된 또 다른 건축적 외피를 만들고 있다. 이러한 이미지화된 막으로서의 외피는 그 자체로 하나의 이미지로 변하지만 시간에 따라(예를 들면 낮과 밤) 혹은 다른 상황에 따라 내부의 모습이 어른거리며 외부로 투영되기도 한다<그림 15>. 이렇게 외부와 내부의 관계가 분리된 듯 하면서도 또한 느슨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도 한 것 같은 독특한 관계성에 대해 헤르조그와 드 메론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는 프로젝트들에서 (외부와 내부 사이에) 가능한 많은 연결들을 만들어 내려고 한다. 그런데 우리

14)Ellen Lupton, Skin: Surface, Substance and Design,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2002, p.97.



<그림 16> Prada 건물의 외부표면 전개도

의 가장 좋은 프로젝트들은 이러한 연결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 프로젝트들이다. 즉 다양한 연결이 미묘하게 존재함으로써 결국 그것들을 볼 수 없게 되

어 버리는 것이다.”<sup>15)</sup> 이 말은 헤르조그와 드 메론이 가지는 외부표면과 내부공간사이의 관계를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다. 즉 외부와 내부 사이에는 많은 연결고리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숨어있고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상황에 따라 항상 변화하는 이미지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이 만드는 외부표면의 역할은 앞에서 언급된 렘 쿨하스의 것처럼 내부와 외부의 관계가 마치 단절된 듯한 상태가 아니라 보다 미묘하고 섬세한 시각적 유희를 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4.2. 토요 이토의 프로젝트 사례

최근 일련의 연작을 통해 독특한 나뭇가지 형태의 건물 외부표면들을 선보이고 있는 토요 이토는 헤르조그와 드 메론이 가지는 내, 외부의 관계와는 또 다른 생각들을 보여준다.



<그림 17> TOD's Omotesando Building

도쿄의 중심 변화가인 오모테산도(Omotesando) 거리에 세워지는 토드(TOD) 매장 건물은 토요 이토의 최근 프로젝트들에서 지속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나무형상의 외부 표면을 볼 수 있다. 나무의 자연스런 줄기와 가지 모양을 띠고 있는 이 표면은 외부에서 강한 시각적 아이덴티티를 가진다. 그런데 이 외부표면은 다른 건축가들의 것과는 다르게 구조적인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다. 즉 외부의 표면이 구조를 담당함으로써 내부의 공간은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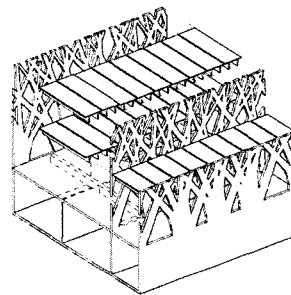
둥 등 구조의 제한이 없이 자유롭게 계획될 수 있는 것이다. 토요 이토는 이 프로젝트를 설명한 글에서 이러한 형상이 “느티나무(Zelkova)가 늘어선 것이 연상되는 실루엣”<sup>16)</sup>에서 왔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느티나무란 토드 건물 앞에 있는 가로수를 의미하는데 이 프로젝트의 초기 스터디 모형들을 보면 나무의 형상이 원래 처음부터 의도되었던 것은 아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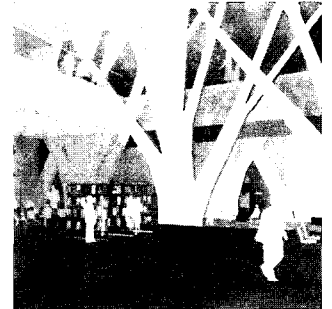
<그림 18> TOD 빌딩의 초기 스터디 모형들

작업과정 중에 나온 것을 볼 수 있고 건축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불규칙적으로 뚫어져 있는 독특한 외부의 표면임을 알 수 있다<그림 18>. 즉 토요 이토는 외부에서 강한 시각적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건물의 표면을 만드는데 집중을 하고 동시에 그 외부의 표면이 구조의 역할까지도 담당하게 함으로써 내부의 공간이 기둥이나 별도의 내력벽이 없이도 자유롭게 디자인될 수 있는 계획을 만들고 있다.

프랑스 아미앵(Amiens)에 위치한 FRAC(Fonds Régional d'art Contemporain de Picardie à Amiens) 현대미술관 프로젝트의 입체 전개도를 보면 이미지와 구조로서의 외부표면과 기둥 없이 자유로운 내부공간의 관계가 잘 나타나 있다<그림 19, 20>. 이렇게 그의 건축에서는 건축의 외부표면이 독특하게 이미지와 구조라는 이중적 역할을 가지고 구조 없이 자유로운 내



<그림 19> FRAC, Amiens  
외부표면과 내부공간



<그림 20> FRAC, Amiens  
내부공간 이미지

부공간과의 관계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건축가들의 경우와는 다르게 구조라는 하나의 새로운 요소가 첨가됨으로써 외부와 내부 사이가 특이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외부의 막이 구조적 역할을 하는 건물들은 조적조의 경우처럼 건축역사에 있어서 다양하게 존재해 왔지만 토요 이토의 최근 프로젝트들에서 나타난 외부 표면의 다중적인 면은 구조적 역할도 중요하지만 외부와 내부에서 보았을 때 얻어지는 강력한 시각적 이미지의 추구에 그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5. 결론

지금까지 건축의 외부와 내부 사이의 이상적인 유기적 관계

15)El Croquis No.60, Herzog & de Meuron, 1994, p.21.

16)A+U No.404, A+U Publishing Co., 2004, p.124

에 대한 생각들과 함께 현대건축에서 나타나고 있는 외부 표면의 다중적 역할과 내부공간과의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관계성들에 관해 살펴보았다.

간략하게 본론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먼저 렘 쿨하스는 그의 독특한 해석방법으로 초기 맨하탄의 도시공간을 분석하고 뇌엽절제수술이라는 개념을 끌어내게 된다. 내부와 외부가 마치 외과 수술과도 같이 단절되어 버리는 뇌엽절제수술 개념은 그의 일부 프로젝트들에서 나타나고 있다. 외부는 주변의 건물들과 관계를 가지면서도 내부는 또 자신만의 논리를 가지고 서로 상반되게 병치되어 있는 관계성은 벅스 주거의 사례에서 잘 나타나 있다. 다음으로 헤르조그 & 드 메론의 경우는 프라다 매장의 사례에 잘 나타나 있는 것처럼 외부의 표면이 하나의 이미지로서 시각적 아이덴티티를 가지지만 그 외부는 내부공간과 매우 미묘한 관계를 가지면서 마치 실루엣 같이 내부와 외부가 복합되게 중첩되는 이미지들을 시간 등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보여주게 된다. 즉 앞에서 언급된 렘 쿨하스 사례들의 내부와 외부가 보다 단절된 상황이라면 헤르조그 & 드 메론의 사례는 보다 섬세하고 느슨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토요 이토의 사례에서는 그의 여러 최근작들에서 잘 나타나 있는 것처럼 외부의 표면이 강한 시각적 이미지를 가지면서도 또한 구조적 역할까지 담당함으로써 내부의 공간이 자유롭게 구획될 수 있고 기둥 없는 내부 공간에서 외부의 표면이 시각적으로 잘 인지될 수 있게 만들고 있다.

이상과 같이 3명의 현대건축가 사례들에서 외부 표면의 서로 다른 다중적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앞에서 논의된 건축가들의 사례들은 현대건축에서 나타난 매우 다양한 사례들 중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그 방법론 또한 지극히 제한되어져 있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특히 렘 쿨하스의 경우, 자신의 프로젝트에 적용시킨 뇌엽절제수술이라는 개념은 초기 맨하탄이라는 한정된 시기와 장소를 바탕으로 그 만의 특수한 해석방법으로 만들어진 생각이므로 현대 도시건축 전반으로까지 확대해석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렘 쿨하스의 방법론을 초기 맨하탄의 도시상황과 그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다른 두 현대 건축가들과 비교 분석을 시도했던 이유는 현대 도시건축에서 일어나고 있는 외부 표면과 내부공간사이의 새롭고 다양한 관계들을 읽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대건축에서의 외부표면과 내부공간사이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이 현재 우리의 도시상황 속에서 찾아지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1. Jean Baudrillard, 이상률 역, La Societe de Consommation ses Mythes ses Structures(소비의 사회-그 신화와 구조), 문예출판사, 2002
2. Le Corbusier, 장성수·장성주 역, Towards A New Architecture(세로

- 운 건축을 향하여), 태림문화사, 1987
3. William J. R. Curtis, Modern Architecture Since 1900, Phaidon, 1996
4. Toyo Ito, Blurring Architecture, Charta, 1999
5. Rem Koolhaas, Delirious New York, 010 Publishers, 1994
6. Rem Koolhaas and Bruce Mau, S, M, L, XL, 010 Publishers, 1995
7. Ellen Lupton, Skin: Surface, Substance and Design, PrincetonArchitectural Press, 2002
8. Deyan Sudjic, The 100 Mile City, Andre Deutsch, 1992
9. Carol Willis, Form Follows Finance,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95
10. A+U No.404, A+U Publishing Co., 2004
11. El Croquis No.60, Herzog & de Meuron, 1994
12. Nexus World Project Department, 벅스 월드 연구회 역, Nexus World, 서우문화사, 1993

<접수 : 2004. 10. 8>